

대통령상
광주 문화중학교 교사 형지영

책벌레 선생님의
별난 책사랑,
별난 학생사랑,



형지영 교사는 학생들에게 책읽기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있어 교사가 모범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사례는 없다고 한다. 역시 모범을 보일 것이 아니라 교사가 먼저 독서를 '놀이' 삼아야 한다는데, 독서교육에 관한 기발한 아이디어 역시 '놀이'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형 교사의 독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그만큼 유별나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서점 주인이 되거나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되어야지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는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독파하며 꿈을 키웠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와 책에 대해 밤새워 토론하며 정신의 키를 키웠습니다. 책을 읽고 난 뒤의 감동들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에게 '독서메모'를 권장하는데 제가 먼저 경험해보아 유익함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독서교육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독서가 주는 효과를 배가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합니다.”

형 교사는 독서교육을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그 중 '도서관 활용을 위한 총체적 독서교육 7단계 프로그램'은 타 학교에서도 모델삼을 정도로 실

효성이 높다. 총체적 독서교육 7단계란 '도서관 운영을 통한 독서환경 조성', '책 소개 릴레이, 독서방송을 통한 독서동기 유발', '단계별 모형을 통한 독서능력향상', '교과연계 독서활동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신장', '바른 인성을 키우고 자기성장을 돕는 독서클리닉', '평생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습관 형성'으로 구성된다.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아이디어의 보고인데, 이런 프로그램들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은 형 교사는 지난 2001년 《통합적 독서교육》을 출간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는 것을 보고 지도교사였던 저도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쑥쑥' 자라더라구요. 독서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을 위해 또 한번 해야 될 일이 이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상을 받고나면 아이들은 제법 어른이 되지요. 아이들을 챙겨 독서대상에 매년 응모를 했는데, 다섯 해 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노력에 상이란 것이 더해지고 나니 '선생님, 이런 책읽기는 어때요?' 하며 아이들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형 교사는 독서교육을 시작하며 전만큼 많은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한다. 그렇지만 제 몫의 독서를 학생들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한 보람도 없다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힌다'는 김구 선생의 말도 책을 가까이 한 사람만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법이란다. 독서를 게을리하면

삶에 대한 성찰도 게을러지는 때문인지 정서가 확연히 거칠어지는 걸 느낀단다. 학생들의 독서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성찰을 갖게 하는 까닭이다. 학생들이 바르게 커가는 데는 이러한 자기성찰만큼 좋은 자양분은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책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독서교육에 있어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제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양식을 아이들과 나누게 된만큼 더욱 행복한 책읽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은 사람을 외면하는 법이 없다. 책과 늘 가깝게 지낸 형 교사는 자신의 꿈을 보기 좋게 이루었고, 오늘 독서대상 '대통령상'이라는 값진 성과까지 더불어 안게 되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오랫동안 참된 독서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 알기에 한편 마음이 불편하다”며 형 교사는 인터뷰 내내 부끄러워했는데 반듯하고 잘 닦인 형 교사의 마음 역시 책이 만든 것일 터였다.

